

전국체전 성공 위해 익산시민 나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익산사랑운동 선포식 개최... 내년 10월까지 본격 홍보 돌입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익산 시민이 나섰다.

지난 26일 오후 KTX 익산역 광장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현 전라북도도의회의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서포터즈,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및 익산사랑운동선 포식'이 개최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선호 시민서포터즈 단장과 분과위원장 등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서포터즈 대표 이선호 단장과 정

노사 씨, 익산사랑운동 대표 송산준, 정영미 씨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포터즈 및 익산사랑운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익산 시민서포터즈 2,986명은 발대식 이후 오는 2018년 10월 전국체전 개최 시까지 본격 홍보에 돌입한다.

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체전 개최연도(2018년)를 의미하는 '2018' 명의 서포터즈 모집을 계획했으나 시민과 단체들의 높은 호응으로 2,986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전국체전 개최 시까

지 각종 전국대회 행사에 참여해 '2018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체전 개최 후에는 응원활동과 경기장 안내, 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익산사랑운동'도 함께 병행한다.

익산사랑운동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회장 조흥찬)에는 84개 단체가 참여해 기초질서, 친절, 나눔과 배려 등 3개 분과로 나눠 '공명찬 사회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 '감동을 주는 친절실천 운동 전개', '나눔과 배려를 통한 정감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는 익산사랑운동을 알리고, 시민의식 선진화 필요성을 알려 시민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익산사랑운동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공감하는 시민의식 향상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익산사랑운동에 총력을 다해 품격 있는 익산시 이미지를 만든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서포터즈와 익산사랑운동 활동은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 익산을 알리고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옥진 교수,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 위촉

(원광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축산농가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위해 노력할 것"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로 위촉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준 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소송, 민지 등 환경에 관한 각종 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원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양측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해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환경피해 분쟁사건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및 환



경피해역 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년간 활동하는 김옥진 교수는 "동물은 소음, 진동에 대해 사람보다 더 민감한 축산 농가의 경우 주변 건설현장으로 인한 유산, 사산, 산유량 감소, 산란을 감소, 증체를 감소 등의 문제가 유발돼 피해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 분쟁사건 전문가 위촉을 계기로 축산 농가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대형결합활동 실시

군산시는 오는 31일 개최되는 국가행사인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대비하여 행사장인 신시광장 일원에서 시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결합활동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을 '대형결합활동의 날'로 지정하고 최근 관공명소로 떠오르는 신시도, 무너도, 선유도를 집중적으로 청소해 왔으며, 지난 26일에는 바다의 날 행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이 실시되었다.

한편 이번 청결활동에는 신시도와 아미도를 연결하는 2km 정도의 방조제 구간에서 실시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도 70여명의 인원을 지원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농어촌 빈집 임대 시행

'2017농어촌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주거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으로 2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 대상지는 5년간 주택을 임대·관리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하림, 안창수 화백 '닭 소재 작품' 전시회

6월 2일까지 본사 특별전시장



하림은 본사 특별전시장에서 지난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안창수 화백의 닭을 소재로 한 그림과 부채 등 작품 7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임직원들의 문화예술 혜택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림은 본사 특별전시장에서 지난 26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조화와 동물화 전문 작가인 설파(雪波) 안창수 화백의 닭을 소재로 한 그림과 부채 등 작품 7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하림과 안창수 화백의 작품 속 닭이 인연이 되어 마련된 자리이며, 특히 올해 붉은 닭의 해로 닭이 갖는 부지런함과 총명함을 통해 하림 기업이 성장해 나가기에 기원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

하림에서 11번째 전시회를 연 안창수 화백은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지난해부터 닭과 관련된 작품을 준비해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경남 도청 등에서 그림을 선보였다"며 "무엇보다도 닭과 관계가 깊은 하림에서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

어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설파 안창수 화백은 부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전문금융인으로 생활하다가 60의 나이에 동양화가로 변신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꽃과 새를 비롯해 호랑이와 독수리, 용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자기에 그림을 넣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보건소, 치매극복 업무협약 체결

호원대-도광역치매센터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군산시의 이틀다운 동행이 시작된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4일 호원대학교에서 시 보건소-호원대학교-전북도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인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 협력하에 ▲치매이해교육을 통한 치매과트너 양성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 협조 ▲인간 존중과 치매 친화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상호 각종 활동 및 행사 공동개최·협조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서

로 노력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과 더불어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 받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 대형유통업체, 지역나눔활동 '훈'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군산시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나눔의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마트 군산점(점장 강정운)은 군산시와 지역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이 가정에게 총 40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롯데마트(점장 박창열)는 지난 18일 군산시에 3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물품을 시 드림스타트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대형유통업체의 후원은 시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내 상생협력 사업이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 한국폴리텍대학, 조직문화 우수 캠퍼스 선정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조직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됐다.

글로벌 기업 IBM의 Louis Gerstner 회장은 "사업의 성공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조직문화가 아니라, 사업 성공 그 자체가 조직문화의 성공"이라고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실시한 2016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교직원 소통, 일·가정 양립, 활기찬 직장, 복지시설 조성 등 네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냈다.

학생 안전복지 증진 및 문화가 있는 캠퍼스를 조성했으며, 매일 생일을 맞은 교직원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일하기 즐거운 캠퍼스 문화를 조성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